

중국 고대사회의 시간활용*

최진목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 머리말

현대사회는 시간의 정밀성과 속도감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라고 할 만큼 시간이 갖는 비중과 중요성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전통사회에서 특히 중국에서 “해뜨면 나가 일하고 해지면 들어와 쉬는”(日出而作 日沒而息) 생활을 하는 일반 민들에게 수치로 분절화된 시간은 그다지 주목할 만한 개념이 아니었다. 그러나 전통사회라고 해도 시간의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해가 뜨고 지는 하루의 변화, 춘하추동의 계절변화, 꽃이 피고 지거나 곡물을 파종하고 수확하는 시기를 알려주는 대자연의 물후(物候) 변화 및 생로병사 등의 인생의 변화가 가져오는 삶의 과정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 인식하지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주제어: 시간활용, 단위시간, 문서행정, 절기, 월령(月令), 원회의(元會儀)
the usage of time, unit-time, document administration, the divisions of the year,
the lunar order, New Year Ritual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순응과 조화 혹은 극복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본고는 중국 고대인들의 시간에 대한 이러한 대응방법과 활용에 관해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시간이 일면 근대사회처럼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계량단위이지도 않았고, 연월일 및 시각 등의 계량화에도 큰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다. 단위시간을 표시하는 시(時)라는 말은 주로 시기(時期)라는 표현으로 등장하여 추상화된 개념으로의 어떤 때 즉, 기회나 조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고, 때로는 우주간에 존재하는 모종의 신비적인 역량이나 추세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쓰여 시운(時運) 즉, 항우의 “시불리혜”(時不利兮)라는 표현처럼 시세의 운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작이나 식물에서의 생명의 발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¹⁾ 그러나 시는 대부분 천시(天時), 사시(四時)처럼 하늘이나 기상, 물후 등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모습 혹은 형세를 의미하였다. 이때 시일(時日)은 고대 달력에서 연월일과 함께 표기된 간지(干支)로 나타나 그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인사(人事)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특정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물론 간지는 후대 점차 60이라는 그 순환주기가 강조되어 인간과 그 사회의 성장성쇠를 의미하는 개념이 덧붙여지기도 하였다.

한편 간지로 표기되는 연월일 시각의 단위시간개념이 불철저하였던 것은 상대적으로 지속적 시간 즉, 우주적인 시간으로서의 “주”(宙)라든지, 어떤 길이를 갖는 지속적 시간의 의미를 말하는 “구”(久) 등의 개념이 유행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시간을 분절적으로 나눈 주야나 세월 역시 하루 혹은 년과 월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지속적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였다. 이런 표현방식은 주로 우주와 인생의 대비에 주로 사용되어 시간의 흐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단어

1) 詹冬華, 「中國古代三種基本的觀時方式; 切入古代時間意識的一個維度」, 『文史哲』 2008-1, p. 81.

로 등장하였다.²⁾

그러나 분절화된 시간단위에 대한 관심과 표현방식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척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루를 단위시간으로 나누는 시제(時制)도 존재했었고, 1일을 100각(刻)으로 나누거나, 혹은 1시간을 10분으로 나누는 분제(分制) 등도 시행되었다. 시제에 관해서는 진한시기를 포함한 고대사회에 적어도 1일 12시간제, 16시간제 혹은 18시간제나 32시간제가 존재했다는 등의 논쟁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³⁾ 이들 논쟁이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시제의 존재는 고대사회에 적어도 시간을 장악하는 황제, 즉 국가권력에 의한 통일된 시간제가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들 시제는 시간을 물론 숫자로 표기한 것은 아니고 천간, 지지 혹은 오행(五行)이나 팔괘(八卦) 등의 부호를 사용하였지만 때로는 별도의 시칭(時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중 12시제는 12지지로 표시되면서 이후 폭넓게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그 기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16시간제는 팔괘로 표기하기 유리하기도 했지만, 근래 출토되는 간독자료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 시간제를 지지하는 견해가 많은 것 같다. 다만 18시간제는 논리적으로 주장되어 왔지만 음양, 오행, 팔괘, 12지지 등 다양한 부호 중 어떤 것과도 결부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웠다고 보는 것이 근래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다. 간혹 천간과 결합한 10시간제나 주가태진간

2) 吳國盛, 『時間的觀念』, 北京大學出版社, 2006, pp. 33-45.

3) 12시간제는 尙民杰, 「居延漢簡時制問題探討」, 『文物』 1999-10; 李天虹 「秦漢時分紀時制綜論」, 『考古學報』 2012-3 등에서 소개되고 있고, 16시간제는 李成珪, 「秦漢帝國的計時行政」(근간); 宋會群 李振宏, 「秦漢時制研究」, 『歷史研究』 1993-6; 李解民, 「秦漢時期的一日十六時制」, 『簡帛研究』 2, 1996 등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18시간제는 일찍이 陳夢家, 「漢簡年曆表跋」, 『漢簡綴述』, 中華書局, 1980)에서, 32시간제는 郝樹聲, 張德芳, 『懸泉漢簡研究』(甘肅文化出版社, 2009)이 각각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추세는 16시간제가 사용되다가 12시간제가 도입되었다는 12, 16시간제의 병존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周家台秦簡)처럼 28수와 결부된 28시간제의 존재도 상정하기도 하는데,⁴⁾ 이것도 10이 역법상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에 널리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32시간제는 16시간제의 배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용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제의 근거가 되는 현천치한간(懸泉置漢簡)에는 52개 이상의 시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지만,⁵⁾ 이는 고대사회의 생활의 속도를 고려할 때 밤낮의 시간을 너무 세분화했다는 측면에서 수긍하기 쉽지 않다. 아마도 어떤 시칭은 자연상태나 일상생활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순한 시간관념에 해당되는 것을 시칭으로 인식한 데에서 오는 오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는 12시간제와 『주역』의 8괘구도와 상응하는 16시간제의 존재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이것들의 선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어느 시점에서 하나로 통일되었는지, 아니면 일정시기 병존한 것인지 등등 많은 의문점들이 아직 명확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다만 천하일통(天下一統)을 강조하고 일원적 지배를 관철하고자 했던 고대제국에서 공적으로는 통일된 하나의 시제만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큰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머지 시제도 사용된 증거가 충분하다면 이것은 다양한 집단에 다양한 시간개념이 존재한다는 인식처럼 고대인들이 생활하는 다양한 생활공간 속에서 각 분야에서 각기 사용하던 시제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즉 서로 다른 생활분야에서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이념 속에서 특정 시제나 시간분할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고대사회의 다양한 생활을 문서행정, 농사활동, 제사와 의례, 질병치료 등의 의료생활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 생활과정에서 사용되는 시간활용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통일된 시제 속

4) 李天虹, 『秦漢時分紀時制綜論』, 『考古學報』 2012-3, pp. 310-312.

5) 郝樹聲, 張德芳, 『懸泉漢簡研究』, 甘肅文化出版社, 2009 참조.

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 분야의 특수성이 서로 다른 시간관념을 내포하였고, 이것이 시간활용에서 일정한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분야를 주로 설명하게 된 것은 고대사회의 자료적 한계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고대인들의 생활의 태반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 문서행정시간

문서행정은 고대제국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고, 국가운영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기본적인 분야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지만, 태반의 출토자료 역시 이 점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활용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전래문헌에서는 일(日)아래 시각까지 병기한 사례가 극히 드문 반면, 근래 보고되는 출토문헌에서는 문서행정과정 특히 문서의 수발과정과 관리의 근무규정 등에서 시각을 사용한 흔적이 매우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진한제국이 서면형식의 문서행정에 기초하여 운영되었고 문서를 보고하는 시기방법을 포함하여 문서의 폐기 등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문서기록의 실수나 착오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처벌규정을 두어 문서행정의 정확성을 기했다는 점은 이미 상세히 알려졌다.⁶⁾ 또한 고대제국은 인간의 모든 활동에 대한 수량화과정을 통해 인적 자원을 조직 통제함으로써 생산 분배 소비 등을 효율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는데⁷⁾ 행정문서에 기록된 각종 수치가 이러한 제국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시간에 대

6) 李均明, 『秦漢 文書制度考察』, 권인한 등편 『동아시아 자료학의 가능성』,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참조.

7) 李成珪, 『計數화된 인간』, 『中國古中世史研究』 24, 2010 참조.

한 측정과 그 기록은 노동량과 근무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제국의 통치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아닐 수 없었다. 출토문헌에 등장하는 시칭을 넘어 분까지의 정밀한 기록은 고대제국이 시간기록에서도 매우 정교하게 운영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출토문헌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시간 기록은 우선 문서의 수신과 발신에 관한 것이다. 이하 각종 시칭이 등장하는 몇몇 간독(簡牘)을 검토해 보자.

- ① 서쪽으로 보내는 서 3통, 격문 1통, 문서 1통을 11월 계묘일 일미중 [해가 아직 중천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일 때에 임천의 졸 벽이 무궁의 졸 림에게 인계하였다("出西書三封 檄一 函一 十一月癸卯 日未中時 臨泉卒辟付毋窮卒林 『懸泉置漢簡』; V92DXT1210③; 102).
- ② 양관도위 명이 서 1통을 올렸다. 감로 원년 11월 정유일 일중[일이 중천에 있을 때]시에, 현천역기 덕이 평망역기 □□에게서 받았고, 일중시에 차요역기에게 인계하였다("陽關都尉明上書一封. 甘露元年十一月丁酉 日中時 懸泉譯騎德受平望譯騎□□. 日中時付遮要譯騎. 『懸泉置漢簡』; I 90DXT0114③; 5).
- ③ 남에서 온 서 1통을 거연도위 장이 장액태수부에 알렸다. 11월 갑자일 야대반[밤의 중앙에 해당되는 야반이 지난 다음의 시간]에 당곡의 졸 창이 수강의 졸 보로부터 받았다. 신축일 잠식[누에가 뿜을 먹는 시간] 1분에 임목의 졸 □가 삼정의 졸 흥에게 보냈다. 그 사이의 거리는 28리이고 가는데 □□이 걸렸다. 규정을 2시 2분 … (南書一封 居延都尉章 詣張掖太守府 十一月甲子夜大半, 當曲卒昌受收降卒輔; 辛丑蠶食一分 臨木卒□付卅井卒弘. 界中二十八里 定行□□ 程二時二分. 『居延漢簡合校』 317.27).
- ④ 정월 무오일 야반[밤의 중앙], 임목의 졸 상이 성오의 졸 승으로부터 받아 기미일 일입[해가 지평선을 넘어 들어갈 때]에 당곡의

졸 □가 수강의 졸 해에게 인계하였다. 그 사이의 거리는 98리인데 12시간이 걸린 것으로 확정되었다. 규정을 2시간 2분을 초과하였다(正月 戊午夜半 臨木卒賞受城遯卒勝 己未日入 當曲卒付□收降卒海 界中九十八里 定行十二時 過程二時二分. 『居延新簡』 E.P.C:26).

- ⑤ 햇불은 마땅히 야대반[밤이 2/3 지났을 때] 5분에 누로수에 전달해야 하고 격은 마땅히 계중명[새벽에 닭이 우는 시간을 3단계로 나누었을 때 두 번째 온 시간]에 누로수에게 ……전달해야 한다(火當以夜大半五分付累虜 檄當以鷄中鳴付累虜□□□□. 『居延漢簡合校』 305, 15).

위 문장에는 일미중, 일중, 야대반, 잠식 등의 시칭이 등장하는데 이들 명칭이 모두 시칭인지의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문서를 수발할 때 발송과 수신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①과 ②는 문서의 접수와 발송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③과 ④에는 야대반, 야반 등이 등장하여 낮 이외 밤에도 문서가 수발되고 있으며 그 시간이 세밀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개의 간독은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중에서 2시 2분이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여기에서의 시는 만일 16시간제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90분에 해당되고, 분은 시를 다시 10등분한 것이므로 9분 정도에 해당되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위 문서는 규정보다 108분 정도 늦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당시 기록의 세밀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⑤ 역시 “야대반 5분”이라는 기사도 ③의 “잠식 1분”과 함께 시간이 분단위로 측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당시 시간측정에 있어 일반적으로 밤의 시간은 별자리를 통해 그 시간을 알아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정밀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적어도 시간을 측정하는 물시계 등의 정확한 기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실제로 물시계를 사용한 흔적은 많고 『이야진간』

(里耶秦簡) 등에는 “야루(夜漏) 몇 각” 등의 기사가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한편 다음 자료를 검토해보자.

- ⑤ 1건의 문서를 우송하는데 반일을 지체하면 벌금 1순에 처하며, 1일을 지체하면 벌금 1갑, 2일은 벌금 2갑, 3일은 속내, 3일 이상은 내형에 각각 처한다(令曰 郵一行書留半日 費一盾 一日 費一甲 二日 費二甲 三日 贖耐 三日以上 耐. 『岳麓書院藏秦簡』 1805).
- ⑥ 그 관은 부에서 70리의 거리이다. 1일1야 전송 규정은 160리인데 문서가 2와 1/3일만에 도착하였다. 무슨 이유인가?(官去府七十里 書一日一夜當行百六十里 書積二日少半日乃到 解何. 『居延新簡』 E.P.S4.T2:8A)

위 기사들은 문서우송의 신속 정확함을 추구하면서 지체된 시간에 대한 처벌내용과 이유 등을 묻는 내용이다. ⑤는 반나절 이상 문서전달이 지체되었을 때 처음 반일과 그 다음은 하루 간격으로 지체된 시간만큼 처벌이 강화되는 규정을 보이고 있다. 盾이 384錢이고 甲이 1344錢이라면⁸⁾ 甲은 盾의 3배 반 정도에 해당된다. 처음 반일의 지체보다 다음 반일의 지체가 가중 처벌되고 있는 셈이다.⁹⁾ ⑥은 문서전달의 표준이 하루에 160리 즉 16시간제로 계산할 경우 1시간에 10리를 전달해야 하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문서가 이틀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이고 그 이유를 묻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우도 소반일(少半日) 즉 1/3일을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노동량의 계산에서 1일을 표준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3일 혹은 반일(半日)단위를 계산하고 있거나 처벌하는

8) 于振波, 「秦律中的甲盾比價及相關問題」, 『史學月刊』 2010-9, p. 38.

9) 반면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行書律에는 “규정에 반나절 맞추지 못하면 태 50대, 반나절에서 하루까지는 태 100대, 하루를 넘기면 벌금 2량”이라는 규정도 있는데, 이는 시간과 처벌강도가 비례되어 반드시 가중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규정은 문서행정에서 극도의 시간의 엄밀성을 추구한 흔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郵)의 업무를 담당하던 관대부(官大夫) 내(內)가 문서를 8일 동안 전송하지 않아 심의대상이 되었던 『주언서』(奏讞書)의 사례는¹⁰⁾ 물론 문서위조죄도 추가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면 매우 엄중한 범죄로 처벌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몇 사례는 전체 문서행정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문서 전달에서 분단위의 시간까지 계산되었다는 사실, 만나질 이상 전달이 늦어졌을 경우 처벌되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서행정에서의 규정시간의 엄수 및 시간의 신속성을 가장 중시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의 표준단위가 1일보다 작은 단위로 반일, 1/3일 심지어는 시와 분까지로 세분화되어 감독 통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¹¹⁾

한편 관리의 근무규정 역시 시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적지 않은 자료들이 남아 있어 시간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다음 자료를 살펴보자.

- ⑦ 계유일 1일 1야 근무하게 되어 돈과 재물을 저장한 건물의 문호를 엄격하게 살폈는데 그 봉합이 완전하였고, 도적이 개봉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평단[아침]에 영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癸酉直符一日一夜 謹行視錢財物藏 內戶封皆完 毋盜賊發者 既日平旦付令史. 『居延新簡』 E.P.T65:398).

위 기사들에는 평단(平旦)이라는 시칭이 나타나는데, 야간 근무자가 다음날 아침 평단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아마도 평단이 야간근무와

10) “河東守讞 郵人官大夫內留書八日 詐更其檄書辟留 疑罪”(『張家山漢墓竹簡』 奏讞書 案例 12).

11) 李成珪, 『秦漢帝國의 計時行政』 (近刊).

주간근무의 교대시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평단이 어느 시대에 서나 항상 하루의 개시시간이었는지는 불명확하다. 평단 이외에도 계명(鷄鳴)과 야반(夜半) 등이 역법(曆法)의 변동에 따라 하루의 개시시간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 같고, 평단은 하력(夏曆)을 사용하던 시기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무제기 태초력(太初曆)의 개력 이후에는 신시(晨時)가 하루의 시작점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고 본다.¹²⁾ 이 밖에도 근무과정에서 병이나 휴가, 근무지 이탈은 물론 출장 등을 계산하여 봉록과 맞추는 사례 등이 자주 등장하며 하루의 근무를 반일 혹은 1/3일씩 세분하여 계산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된다. 관리들의 이동이나 근무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¹³⁾

문서행정상에 등장하는 시칭을 포함하여 당시의 시칭으로 추정되는 명칭을 <표 1>로 작성하여 정리하였다. 이들 시칭으로 당시 시간분할의 세밀화가 문서행정의 정밀성을 높였음을 짐작케 하지만, 이들 시칭을 분석해보면 반드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

1) 12시제의 명칭(李天虹(2012), pp. 290-296에 의거)

12지지	운몽진간 『일서』	영창수천자한묘 『일서』 (永昌水泉子漢墓 『日書』)	공가파 『일서』 (孔家坡 『日書』)	『논형』	둔황당사본유서 (敦煌唐寫本遺書)
축(丑)	계명(鷄鳴)	계명(鷄鳴)	계명(鷄鳴)	계명(鷄鳴)	계명(鷄鳴)
인(寅)	평단(平旦)	평단(平旦)	평단(平旦)	평단(平旦)	평단(平旦)

12) 宋會群 李振宏, 『秦漢時制研究』, 『歷史研究』 1993-6, pp. 10-11.

13) 이 문제에 관해서는 李成珪, 『秦漢帝國의 計時行政』(근간) 제4장 『시간표에 따른 복무』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12지지	운몽진간 『일서』	영창수천자한묘 『일서』 (永昌水泉子漢墓 『日書』)	공가파 『일서』 (孔家坡 『日書』)	『논형』	돈황당사본유서 (敦煌唐寫本遺書)
묘(卯)	일출(日出)	일출(日出)	일출(日出)	일출(日出)	일출(日出)
진(辰)	식시(食時)	식시(食時)	잠식(蠶食)	식시(食時)	식시(食時)
사(巳)	모식(暮食)	우중(隅中)	막식(莫食)	우중(隅中)	우중(隅中)
오(午)	일중(日中)	일중(日中)		일중(日中)	정남(正南)
미(未)	일질(日昝)	일질(日昝)	일실(日失)	일질(日昝)	일측(日昃)
신(申)	하시(下市)	모포(暮舖)	□시(□市)	포시(哺市)	포시(哺市)
유(酉)	용일(春日)	일입(日入)	막시(莫市)	일입(日入)	일입(日入)
술(戌)	우양입 (牛羊入)	혼시(昏時)		황혼(黃昏)	황혼(黃昏)
해(亥)	황혼(黃昏)	인정(人定)	황혼(黃昏)	인정(人定)	인정(人定)
자(子)	인정(人定)	야반(夜半)	인정(人定)	야반(夜半)	야반(夜半)

2) 16시제의 명칭

12간지와 괘(卦) ¹⁴⁾	『회남자』	방마탄진간일서, 생자편 (放馬灘秦簡日書, 生子篇)	『거연한간』 분석, 상민걸 (『居延漢簡』 分析, 尙民杰) ¹⁵⁾	송회군 이진굉 (宋會群 李振宏) ¹⁶⁾	『현천치한간』, 장덕방 (『懸泉置漢簡』, 張德芳) ¹⁷⁾
축	일출(日出)	계명(鷄鳴)	계명	신시(晨時)	신시
간(艮)	신명(晨明)	평단(平旦)	평단	평단	평단

14) 16시간제와 지지나 괘의 배당은 현재로서 확인할 수 없지만, 24시간제가 12地支와 戊 己를 뺀 8天干, 巽坤乾艮의 4괘로 배당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晉書』 律曆志) 12지지와 4괘로 배당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15) 尙民杰, 「居延漢簡時制問題探討」, 『文物』 1999-11.

16) 宋會群 李振宏, 「秦漢時制研究」, 『歷史研究』 1993-6.

17) 張德芳, 「懸泉漢簡中若干“時稱”問題的資料」, 『出土文獻研究』 6, 2004.

12간지와 괘(卦)	『회남자』	방마탄진간일서, 생자편 (放馬灘秦簡日書, 生子篇)	『거연한간』 분석, 상민걸 (『居延漢簡』 分析, 尙民杰)	송회군 이진평 (宋會群 李振宏)	『현천치한간』, 장덕방 (『懸泉置漢簡』, 張德芳)
인	비명(朏明)	일출(日出)	일출	일출	일출
묘	단명(旦明)	숙식(夙食)	잠식	잠식	잠식(蠶食)
진	잠식(蠶食)	모식(暮食)	식시	식시	식시(食時)
손(巽)	안식(晏食)	일중(日中)	동중(東中)	일중	일미중
사	우중(隅中)	일과중(日過中)	일중(日中)	포시	일중
오	정중(正中)	일칙(日則, 昃)	서중(西中)	하포	일실(日失)
미	소환(小還)	일하칙(日下則)	포시(餽時)	일입	포시
곤(坤)	포시(餽時)	일미입(日未入)	하포(下餽)	혼시	하포
신	대환(大還)	일입(日入)	일입	야식	일입
유	고용(高春)	혼(昏)	혼시(昏時)	인정	혼시
술	하용(下春)	야모(夜暮)	야식(夜食)	야소반	야식(夜食)
건(乾)	현거(懸車)	야미중(夜未中)	인정(人定)	야반	인정
해	황혼(黃昏)	야중(夜中)	야반	야대반	야반
자	정혼(定昏)	야과중(夜過中)	야과반(夜過半)	계명	계명

3) 32시제의 명칭 (懸泉漢簡)(VI92DXT1222②; 19)

평단(平旦), 일출(日出), 이간(二干), 잠식(蠶食), 식시(食時), 식좌(食坐), 일미중(日未中), 일중(日中), 일실(日失), 잠포(蠶餽), 포시(餽時), 포좌(餽坐), 하포(下餽), 석시(夕時), 일미입(日未入), 일입(日入), 혼시(昏時), 정혼(定昏), 야식(夜食), 인정(人定), 기소반(幾少半), 야소반(夜少半), 야과소반(夜過少半), 야기반(夜幾半), 야반(夜半), 과반(過半), 야대반(夜大半), 대신(大晨), 계전명(鷄前鳴), 중명(中鳴), 후명(後鳴), 기단(幾旦)

① 지역별로 통용되는 시간의 단위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잠포나 잠식

등은 양잠과 관련된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시간의 명칭일 가능성이 크고, 점차 전 중국으로 퍼졌을 수 있지만, 양잠을 하지 않는다면 이 시칭을 활용하기는 매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시제가 통일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시칭도 통일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자료에 보이는 다양한 시칭은 아마 시대의 차이도 고려해야 하지만 지역별 차이로 인정해도 좋을지 모른다. 특히 일출(日出)이나 일입(日入) 등도 계절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당연히 지역적 차이도 있고 이에 따른 닭의 우는 시간 즉 계명도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차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료가 갖는 지역성을 고려할 때 비로소 어떤 시칭이든 그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문서수발의 사례들은 한정된 지역 내의 문서행정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② 시간단위가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일정한 폭을 갖는 형식이라는 점이다. 즉 일정한 점이 아니라 범위이며 현재의 시칭처럼 특정한 시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시제를 쓰던지 간에 이 시칭들은 어느 시점에서 또 다른 시점까지를 의미하는 범주를 지칭한다. 더구나 시간분할이 균등분할이 아닌 불균등분할로 시칭단위와 단위사이의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즉 등간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대의 시간이 균등분할로 이루어진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문서행정의 엄밀성을 현대적 관념으로 이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시간엄수에 일정한 융통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③ 시간분할에서 중요한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태양의 출몰(日出, 二干, 日未中, 日中, 日失, 日未入, 日入)이다. 여기에서 일실(日失)은 태양이 서쪽으로 치우친 일단의 시간을 의미하고 일미중(日未中)과 대칭점을 이루게 된다. (㉡) 식사시간(蠶食, 食時, 食坐, 蠶舖, 舖時, 舖坐, 下舖, 夕時, 夜食), (㉢) 밤의 진행정도(夜少半, 夜過少半, 夜幾半, 夜半, 過半, 夜大半), (㉣) 닭의 울음소리(鷄前鳴, 中鳴, 後鳴), (㉤) 황혼의 정

도(昏時, 定昏) 등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태양의 상태가 시간을 알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었지만, 일상의 기본적인 일과인 아침과 저녁의 식사시간 및 야식이 이른바 배고픔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칭이었다는 점과 누에가 먹는 시간, 닭의 울음소리 등 징후로 시간을 인지한다는 점에서 천문과 물후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문서행정의 시간이 자연리듬과 규율에서 완전히 벗어나 객관화된 것이 아니라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물론 태양이 천공상(天空上)에서 가장 정중앙에 있을 때인 일중(日中)을 3단계로 나눈 그 앞뒤의 일미중, 일실 등은 객관화 논리화된 시간의 흔적도 있다. 32시제에서 계명(鷄鳴)과 관련된 계전명(鷄前鳴), 중명(中鳴), 후명(後鳴)은 계명을 논리적으로 3분한 것 같은 인상이 든다. 특히 야간의 시간분할은 밤의 진행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고려했다기 보다는 논리를 고려한 시간분할일 가능성이 크다. 12시제의 경우 밤의 시칭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16시제나 32시제의 경우 밤은 야반을 기준으로 전후 3단계로 나눈 논리성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시칭을 너무 많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칭으로 보지 않는 견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문서수발 등의 엄격한 시각을 강조한 측면 이외에도 시간활용에서 오행사상의 영향을 엿볼 수 있는 증거도 있다. 『할관자』(鷓冠子)에서는 행정조직을 리(里), 편(扁), 향(鄉), 현(縣), 군(郡), 주국(柱國)의 6단계로 나누고, 각기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마감시한을 최초 5일에서 5의 배수로 늘려 최종적으로 계국에서 천자까지는 60일이 걸리는 체제를 말하고 있다.¹⁸⁾ 실제 실행되었다기보다는 이념에 불과할 수 있지만, 오행으로 인식된 자연규율과 사회질서를 부합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18) 『鷓冠子』(四部備要本)「王鈇」第9 “故家里用提 扁長用旬 鄉師用節 縣齋夫用月 郡大夫用氣分所至 柱國用六律 里五日報扁 扁十日報鄉 鄉十五日報縣 縣三十日報郡 郡四十五日報柱國 柱國六十日以聞天子”.

마지막으로 연말 각 지방에서 상급기관에 일년간의 호구간전(戶口墾田)의 수, 전곡(錢穀) 입출상황 도적의 다소 등을 집계하여 보고하는 상계(上計)문서는 계단(計斷) 즉, 통계를 마감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였다. 10월이 세수(歲首)인 진(秦)에서는 9월이 한해를 마감하는 이른바 세종(歲終)에 해당되었는데, 한초(漢初)에서도 여전히 이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태초개력(太初改曆)이후 정월이 세수로 되었지만 이 규정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는 후술할 원회의(元會儀)에 상계리(上計吏)들이 참석하여 신년초에 황제에게 보고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 통계를 마감하고 문서를 작성하며 경사로 올라갈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¹⁹⁾ 시간에서 마감을 중시했던 사례이다.

3. 농사활동과 시간

농민의 하루의 일과는 “해뜨면 나가 일하고 해지면 들어와 쉬는” 가장 초보적인 일상생활의 시간관념을 보여주고 있지만, 농사의 주기는 하루보다는 일년이 기본이기 때문에 계절과 절기(節氣)가 시간단위에서 가장 중요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물론 때로는 계절에 따른 활동을 담은 시령(時令)보다도 월별 활동에 중점을 둔 월령(月令)이 강조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계절은 농사활동에서 참고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시간이었다.

사시(四時)라는 것은 봄에는 (만물이) 탄생하고 여름에는 성장하며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주고 받는 것에 절기가 있고 나가고 들어오는 데에도 시기가 있다. 열고 닫고

19) 高恒, 『漢代上計制度論考; 兼評尹灣漢墓木牘“集簿”』, 『簡牘研究』 1999-1. p. 78.